

겉치고 뒤섞인 공상그림 박상운

인터뷰 뚝딱이사진이 안태영과 박상희, 김신 대림미술관 부관장
엄마의 사진기 역광사진
이용환의 사진기론 촬영거리와 프레이밍



9



상상 속의 재건설

자르고 재조합하는 캔버스 위의 사진가 마리 끌로케

Marie Cloquet



Nouadhibou I, 2007, collage, photographic emulsion and watercolour on paper, 260 x 570cm



마리 끌로케(Marie Cloquet)가 뷰파인더 안에 담은 이미지들은 조금 낯다르다. 세상의 구석진 곳, 버려지고 남겨진 곳의 잔상들을 필름에 담아 자르고 재조합하여 전혀 새로운 세상, 상상 속 나라의 이미지를 탄생시킨다. 그녀는 이 버려지고 낯설고 황폐한 풍경들을 통해 어떤 가르침이나 경각심을 주기보다는 허물어져가는 상태의 형상들과 풍경들에서 약간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미의 관점을 선사한다. 캔버스 위의 포토그래퍼, 사진을 그리는 화가라 불리는 그녀의 색다른 작업은 사진이 지닐 수 있는 가능성, 그 중에서도 사진으로부터 시작해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객들의 눈을 매료시킨다.



Nouadhibou II, 2009, collage, colourprint and watercolour on canvas, 150x300cm

벨기에 플란더스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작업하는 작가 마리 끌로케는 주로 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며 니콘 FM카메라로 세상에서 버려진 풍경들을 찍는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된 수백 장의 네거티브 필름들은 벨기에 겐트에 있는 그녀의 암실에서 직접 인화된다. 그리고 이미지들은 인화지가 아닌 드로잉 페이지에 프린트되며 이후 사진용 에멀전인 그 위에 덧칠해진다. 그리고 수십 조각, 많게는 수백 조각으로 잘리고 재조합되는 작업을 반복하며 사진들은 먼 캔버스 위에 정착되어 뚜렷한 형상을 드러낸다. 정착체가 마르면서 이어지는 단계는 사진을 사이사이를 수채화 물감으로 채워 넣는 작업이다. 작품의 크기는 때에 따라서는 6미터를 넘는 대형작들도 있어 작업 하나를 완성하려면 최소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마리 끌로케의 작품은 보는 이의 시각을 한참 동안 끌어당기곤 한다. 사진이지만 그림 같은 색채를 지닌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풍경들과 오브제들 또한 기나긴 사연을 지닌 듯 관람객의 시선을 이리저리 이끈다. 또한 우울하고 버려진 것 같은 풍경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함과 작품의 크기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그 황폐한 공간 속을 직접 여행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사실적인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드로잉에서 느껴지는 손 익은 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쫓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정적인 감성을 자극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동시대적이고 경계의 무의미함이 강하게 인식된다. 세상 어느 곳에서건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고 비슷한 현상들을 겪으며 같은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쳐난다. 세상을 찍는 사진가들의 감성 또한 달아있는 경우가 많다. 무한하고 다양하지만 매체



Nouadhibou V, 2010, collage, photographic emulsion and watercolour on paper and canvas, 280x510cm

의 틀을 보기 좋게 깨는 작업도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가 바라보는 일상 중 가장 먼저 배제해 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한 귀퉁이를 골라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 사진과 그림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녀의 작업은 그동안 우리가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이미지의 정의를 새롭게 한다. 작은 체구의 작가 마리 끌로케. 그녀가 바라보는 독특한 세상이 대형 스케일의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앞에 펼쳐진다. 그녀의 이 색다른 작업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다.

어떤 계기로 아티스트의 길로 접어들었나?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그림 그리기였다. 하루의 대부분을 그림을 그리며 보냈는데, 아무래도 가족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사진가였던 아버지의 카메라를 8살 때부터 만지며 놀았고, 할아버지와 증조부는 건축가였다. 사실 나도 건축가를 꿈꾸며 미술수업을 받았었다. 16살부터 건축에 쓰이는 수학을 공부하며 대생과 페인팅 교육을 함께 받았다. 그래서인지 사진을 오리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나의 작업은 어딘지 건축적이고 수학적인 면들을 드러내는 것 같다.

부서지고 허물어진 이미지를 찾아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항상 잃어버린 장소와 우리가 속한 문명의 범주에서 약간은 벗어난 장소에 강한 흥미를 느껴왔다. 일부러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장소를 만나고, 여행을 하면서도 항상 나의 눈은 그러한 장소를 물색한다. 이런 장소는 내게 무한한 영감을 안겨주며, 그때마다 나는 머릿속으로 온갖 의문을 떠올리곤 한다. 나는 사물이나 장소를 바라보며 머릿속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노력하



Nouadhibou VI study, 2009, collage, black and white print and watercolour on paper and canvas, 80×60cm



Nouadhibou VII, 2010, collage, photographic emulsion and watercolour on paper and canvas, 250×350cm



Nouadhibou XII, 2009, study Collage, black and white print and watercolour on paper, 60×30cm

는 편이다. 그리고 그런 버려진 장소를 관주하며 문명의 범주 안에 속한 인간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느 곳인지도 이해하려 한다.

이미지를 자르고 재조합하는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처음의 시작은 작업을 하면서였다. 모리타니아 여행 중에 우연히 들른 배 무덤, 그곳의 드라마틱하고 장엄한 풍경들에 나는 온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버렸다. 그리고 1년 후에 사진을 찍기 위해 그곳을 다시 찾았다.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후 내가 본 광경을 어떻게 사진 안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러다 사진을 자르고 붙이고, 다시 자르고 붙이고를 반복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듬해에 다시 모리타니아를 찾았다. 그것은 내가 이어 붙인 사진 속 풍경의 연속을 위한 여행이었다. 이후 나는 계속 사진 콜라주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품 속 이미지들은 하나같이 강렬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사진작품 속에서 보이는 특별하거나 아름다운 광경만은 아니다. 오히려 해체되거나 망가지고 버려진 쓰레기더미를 연상시키기에까지 한다. 작가적인 시점으로 작품 속 풍경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해 달라.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버려지고 관심을 잃고 생명이 없는 공간에 흥미를 느껴왔다. 내게는 그런 공간들과 오브제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수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들 속에서 끝없는 여행을 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물들과 장소들이 있다. 그들이 가진 고유의 색상과 형태들을 파헤치는 작업은 조각이나 페인팅 등 수많은 다른 표현언어로 변화한다. 버려진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우



Nouadhibou III, 2010, collage, photographic emulsion and watercolour on paper and canvas, 280x510cm

리 인류의 삶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들이다. 조금만 다른 각도로 사물을 관찰하면 무엇이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작품 속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기는가?

모든 것에서 그렇게 여긴다. 아름다움이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작품 속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요소들은 거친 바위의 텍스처라든지 드라마틱한 구름들, 침몰한 배의 남은 기운들이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이 되어 나를 매료시키곤 한다.

작품들이 그림과 사진의 경계상에 존재하는 느낌이다. 자신의 작품들이 다른 작품들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내 작품을 다른 이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상상 속의 재간설이라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한 기법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제작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호한 상상의 세계를 담은 모호한 경계의 그 무엇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가 있나?

아프리카. 내게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일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곳은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천국이며,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머물며 나를 괴롭히던 또 다른 문제들을 표면 위로 끌어올려 가시화 시켜주는 곳이다. 그곳에서 나는 보고 또 보고, 항상 본다. 그리고 그중 주위 담아야 할 이미지들을 사진기를 통해 건져 올린다. 그리고는 내 작업실에 꼭 파묻혀 오랜 시간 작업을 한다. 작업을 통해서도 색다른 영감을 얻기도 한다. 항상 길은 또 다른 길을 가리키는 좋은 지침서와도 같다.

입체 작업도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커다란 배를 만들고 집을 설계하기도 하는데 사진작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진작업의 한 연장인가?

꼭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여러가지 대답이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나는 예술이라는 경계 안에서 내가 흥미를 느끼는 모든 소재를 가지고 놀이를 펼친다.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 자신 속에 드는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조율의 과정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MP

글 | 지은경(큐레이터), 디자인 | 김윤정기자

지은경은 유럽과 서울을 오가며 전시 및 출판물을 기획하는 프리랜서이다.

Marie Colquet

www.mariecolquet.com
All Images © Marie Colquet



마리 콜로케와 그녀의 불기에 견뎌 스튜디오

Born in 1976/Lives and works in Ghent, Belgium

Education

1994~1998 School of fine arts/hogeschool voor wetenschap en kunst, departement beeldende kunst en, St-Lucas, Gent

Solo Exhibition

2010 Picture this! Museum Dhondt-Dhaenens, Dourle
2009 'high tide/low tide' Argentaarium gallery, Knokke
2002 'photography on canvas' Koraalberg Art Gallery, Antwerpen

Group Exhibition

2011 casa Argentaarium gallery home coming party, Ghent, Belgium
coming up: 'Jonge vlaamse meesters' Hermitage, Amsterdam, The Netherlands
2008 'Event of the unforeseen' Laugavegur 66, Reykjavik curated by Hulda Ros Gudnadottir and Dionysia 'Reind' verkante zsal, Sint-Niklaas
10 artists, Curated by Filip Van De Velde
Snap shot, City Gallery, Ramie
2007 'Creative space' organised by 'Chantier', Gent
'what's the question' organised by 'Chantier', Gent
'Labo #2' organised by vzw existentie, Gent 'Labo#1' organised by vzw existentie, Gent
2003 'Het kunstsalon van Gent' St-Pietersabdij, Gent
2001 'Nieuwe tentoonstelling' Kortrijk
'Young artists(selected by)' Witte zaal, St-Lucas, Gents
2000 'Young artists(selected by)' Witte zaal, Gents
'Young artists(selected by)' Witte zaal, Gents
Hoet, Gent